

투데이

“2015 국제디자인연맹 총회 광주로”

개최지 선정 실사단 내달 10일 광주 방문

최근 대형 국제행사를 연이어 유치한 광주시가 이번엔 세계적 디자이너 수천명이 참가하는 2015년 국제디자인연맹(IDA)총회 후보지로서 다음 달 실사를 받는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5년 IDA 총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실사단이 오는 12월 10일부터 4일간 광주를 찾는다. 실사단은 이번 방문 결과 등을 종합해 내년 1월 31일 최종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문화부와 공동으로 IDA 총회 유치 1차 입찰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후보지 2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

IDA는 세계 디자인업계의 대표적 단체인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와 국제그래픽디자인협회(ICOGRADA), 세계 실내건축가연맹(IF)이 공동발전을 위해 2007년에 결성한 연합체이며, 2년마다 총회를 공동으로 열고 있다.

1회 총회는 지난해 10월 타이베이에서 열렸으며 제2회는 2013년 이스탄불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IDA총회가 유치되면 50여개국에서 세계 유명디자이너 4000여명이 광주를 찾게 돼 2015 광주디자인 비엔날레와 연계한 국제디자인엑스포 개최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세계기록유산자문위원회(5월), 세계청년회의소 아시아태평양 회의(6월), 세계한상대회(10월)와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대회(6월), 국제관계배수위원회 총회(9월)에 이어 2015년 광주국제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줄줄이 예약돼 있어 연계 효과를 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위길환 도시디자인 국장은 “2015 IDA총회를 반드시 유치해 국제 디자인도시로의 발돋움과 첨단산업, 문화산업 등을 융합한 디자인산업의 육성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집배원과 함께하는 투표참여 홍보단

전남도 선거위는 12일 화순 우체국 주차장에서 집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체국 집배원과 함께하는 투표 참여 이동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전남도 선거위는 이날 제18대 대선에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남 21개 시·군 우체국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남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도 선거위는 12일 화순 우체국 주차장에서 집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체국 집배원과 함께하는 투표 참여 이동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전남도 선거위는 이날 제18대 대선에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남 21개 시·군 우체국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남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당 원전 특위 오늘 영광서 현장조사

서정성 시의원 “안전성 검증때까지 가동 중단해야”

영광원전 안전성 우려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광주일보 12일자 3면)에 따라 민주당이 ‘원자력 안전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12일 교육과학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과 해당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낙연(당·영광·영광·장성)·신학용(교육과학기술위원회)·강창일(지식경제위원회) 의원이 맡았으며, 유기홍·오영식 의원이 간사로 활동하게 된다.

대책위는 13일 미검증 부품 사용

파문에 이어 국내 원전 사상 처음으로 제어용 균열까지 발견된 영광 원전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현장조사를 통해 5·6호기 미검증 부품의 납품 비리 경위를 조사하고, 균열이 발견된 3호기와 관련해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책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누장보고와 허술한 품질보증 시스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뒷북 대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및 원전 민간감시기구, 영광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편, 서정성(민주·남구 2) 광주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광 원전 사태와 관련해 광주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며 “국민의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될 때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영광원전 모의 실험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로 바람이 부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암 사망이 최대 39만 명, 최고 235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돼 최악의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며 “작년 일본 원전사고 때만 해도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이 위조부품 공급, 균열 은폐, 전력 대란 등등 지역사회의 생명 위협하는 앞잡이가 됐다”고 비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병기 31사단장 취임



박병기(52·소장) 신임 육군 31사단장이 12일 취임했다.

박 사단장은 담양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1984년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입관해 12사단 대대장, 육군본부 경비연대 연대장,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군수기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3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안보를 책임지는 사단장의 중책을 맡게 됐다”며 “주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며 31사단을 강한 전투형 군대, 믿음직하고 멋진 31사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임하는 고성군 소장은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영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시진핑 기반’ 저장성과 한·중포럼

전남도와 중국 저장성(浙江省)은 12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제14회 한·중포럼을 개최했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포럼에는 이종배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의 기

조연설과 양 지역 관계자의 주제 발표 및 질의·답변을 갖는다.

또 한파웨이(韓大衛) 중국전력 저장성 분공사 총경리의 ‘중국전력 동부산도의 신재생에너지와 디젤의 분산전원 이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편 전남도는 중국 차기 지도자가 될 시진핑(習近平) 부부석이 당서기를 지낸 저장성과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양 지역에서 번갈아가며 한중포럼을 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진에 전남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발기인 창립총회...내달 성전면에 완공

전남도는 1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한 21명의 발기인이 모여 (재)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올 12월에 완공 예정인 환경산업진흥원은 환경부·전남도·강진군이 사업비 350억원을 들여 강진 성전면 송화리 일원에 건립 중이다. 환경산업진흥원과 연계해 미래 성장동력인 환경산업의 육성·지원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환경기술 개발·육성 분석 업무, 환경신기술 실증 및 인증, 환경분야 연구개발(R&D)사업과 업체 창업·

보육 지원, 기술이전·교류 사업, 대기수질 측정장비 국산화 등 지속적인 특화사업 발굴로 환경산업 육성을 맡는다.

이날 총회에서는 발기인 대표 선임과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 제정·임원 선임, 2013년 예산·사업계획안, 직원 채용과 관련한 조직 등을 의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보육 지원, 기술이전·교류 사업, 대기수질 측정장비 국산화 등 지속적인 특화사업 발굴로 환경산업 육성을 맡는다.

이날 총회에서는 발기인 대표 선임과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 제정·임원 선임, 2013년 예산·사업계획안, 직원 채용과 관련한 조직 등을 의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亞문화전당 채울 콘텐츠 개발 우선해야”

亞문화개발원 운영계획 발표

아시아문화개발원(원장 이영철)은 1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14년 완공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채울 콘텐츠의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새로운 문화 지식 창조·향유의 장’을 콘텐츠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비서구

적 접근(타자성)과 대중참여(대중성), 다자간 네트워크, 쌍방향 소통(뉴미디어), 창의적 지식, 실험중심(수행성) 등 6가지 핵심 키워드로 만들어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구성요소로는 ▲신화·설화 ▲서사시 ▲연극 ▲민속학 ▲주변 학문 ▲탈 공간화 ▲디지털 노마드 ▲감응의 기술 ▲다양한 놀이 ▲새로운 사유 ▲수직적 요소 등을 담

을 예정이다.

콘텐츠를 담은 공간은 상설관 7000평(32%), 공연페스티벌 기획전 5000평(23%), 비블리오테크 800평(4%), 사무공간·수장고 등 기타 편의시설 9000평(41%)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내년 상반기 콘텐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학계와 문화계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발에 소요될 예산이 2500억으로 추산된다”면서 “다들 건물 짓는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건물 안을 채워 넣을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완공 이후에도 개관이 불투명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광부와 광주시 등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내년 상반기 콘텐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학계와 문화계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전남 차단방역 소홀 농가 8곳 적발

전남도는 12일 “지역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업체 등의 차단방역 추진실태를 점검, 방역규정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축산농가 63곳, 도축장 5곳, 사료업체 5곳, 가축시장 2곳 총

75곳에 대해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여부, 백신접종 여부 대한 집중 점검을 한 결과 8개소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독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설치하지 않은 진도 A축산농가 등 2곳 대해 해당 시·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75곳에 대해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여부, 백신접종 여부 대한 집중 점검을 한 결과 8개소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독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설치하지 않은 진도 A축산농가 등 2곳 대해 해당 시·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석산고등학교

2012학년도 전국일반고
학력·교육여건·선호도평가
광주광역시 남고1위 전체 2위
동아일보
중앙일보

2011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교과부선정 학업 향상도 광주광역시 **1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각종경시대회
금상 수상(2012학년도) (수학/과학/독서논술토론경시대회)

에듀팟기록 전국 우수학교 (2011~2012)

독서활동 기록 광주광역시 우수학교 (2011~2012)

봉사활동 전국 대상 (2009)

중앙일보 선정 차세대 파워 엘리트 전국 25위 (2006)

최근 3년간 장학금 132,500,000원 지급

의·치학 352명, 법조계 56명 배출

2012학년도 서울대·연·고대 19명, 서울/수도권지역 7명 합격

21세기 교육을 선도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광주석산고
광주석산고등학교 총동문회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 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한미금거래소

금맥을 캐내라!

금거래 비즈니스가맹점을 모집합니다.

한미금거래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금속 브랜드 골드스토어를 통해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장점)

1.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2. 전문지식이 없어도 1주 본사교육으로 창업가능
3. 자금 회전이 빠르고 안전
4. 지식경제부가 승인한 ‘조세특례법 106조 5항’에 의거 이익 창출
5. 지역 영업권을 확실히 보장(계약서에 명시)

가맹문의 **02)542-4611**

www.hanmigold.co.kr